상야조생(上野早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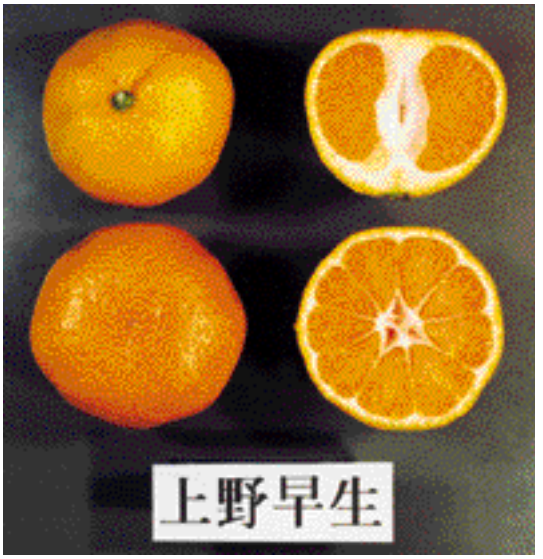
▲ 상야조생

1. 육성경위

1970년 일본 사가현(佐賀縣)에서 궁천조생의 가지변이로 발견하여 계속 과실특성을 조사한 결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1985년 등록된 품종이다.

2. 주요특성

수세 및 수량성 극조생온주밀감 가운데는 수세가 왕성한 편이고 가지의 발육이 양호하며 주간의 굵기와 나무전체의



▲ 상야조생의 과실

◇ **과실품질**

지 역 별	90% 착색일 (월. 일)	과실무게 (g)	과 형 지 수	과육비율 (%)	당 도 (Bx)	산 함 량 (%)	당 산 비
제 주	10.28	93.6	128	80.8	10.6	1.37	7.7
일 본	10.19	114.0	130	-	9.7	1.00	9.7

자료원 : 제주 - 제주도농업기술원 90~ 98년 조사성적 평균
일본 - 사가현(佐賀縣) 과수시험장 95년 조사성적 평균

수관확대는 궁천조생과 비슷하며, 잎도 약간 크다. 묘목을 만들 경우에 우량한 묘목 획득율이 높은 품종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 감귤품종보존포에서의 만개기는 5월 21일경이며, 결실성이 양호하고 수량성이 좋고 재배에 까다로운 점이 적다.

과실특성 및 품질 꽃피는 모양, 크기 등 여러 가지 특성이 궁천조생과 거의 비슷하다. 과실모양은 궁천조생보다 약간 편평하나(과형지수 125~131) 온도교차가 심한 곳에서는 둥근과실(요고과)이 발생한다. 과실 크기가 균일하고, 과피는 얇으며, 주황색이 많아 과피색이 좋고 초기비대가 양호하다.

제주도농업기술원 감귤품종보존포에서의 과피착색은 10월 중순경에 50%착색되며, 완전착색은 10월 하순경에 이루어 진다. 착색시부터 완전착색 될 때까지의 기간이 궁천조생에 비해 짧고, 동시에 착색되기 때문에 수확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90% 이상착색시 과즙의(90~ 98년 평균) 당도는 10.6 Bx, 산함량은 1.37% 이다.

장점으로써는 부피가 적고 담백화현상이 다른 품종에 비해 적어 11월까지 나무에 놔두면 당도가 높아져 식미가 향상되며, 토양조건에 의한 품질의 불균일화가 적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숙기 및 출하기 성숙기는 10월 중하순으로 조생온주밀감보다 10~15일 빠른 품종이다. 그리고 출하폭이 극조생온주밀감 중에서는 넓은 편으로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출하가 가능하다.

3. 재배상의 유의점

재배적지 선정 일찍 수확하면서도 고품질과를 다수확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높고(특히 밤온도), 햇빛쪼임이 좋으며, 개화가 빠르고 배수가 양호한 감귤원을 선정 재식하는 것이 좋다.

재배관리 **건전묘목 이용** - 온주위축바이러스에 걸린 접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건전한 묘목을 이용한다.

열매솎기 및 토양관리 - 가지별로 전체 열매솎기를 실시하며 결과시키는 곁가지(측지)에는 많은 열매를 결실시킨다. 결실한 곁가지는 9월에 이르면 결과지가

◇ 가온재배시 품질

품종별	과실무게 (g)	과형지수	과피색 (1~10)	과육비율 (%)	당도 (Bx)	산함량 (%)	당산비	속껍질두께 (mm)
상야조생	70	148	5.5	77	12.0	0.96	13.2	0.19
궁천조생	79	142	4.6	79	12.4	0.95	13.1	0.13

자료원 : 미에현(三重縣) 농업기술센터/9년생 나무 이용 93~ 95년 3개년 조사성적 평균

늘어지므로 과실은 과정부가 땅으로 향하여 당이 높고 부피과 발생이 적은 고품질과가 된다. 그리고 상야조생은 궁천조생에 비해 초기에 과실비대가 이루어지므로 전체적으로 열매를 솎아 줄 때는 가볍게 열매솎기를 실시한다. 토양관리 및 시비에 있어서는 궁천조생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토양수분 조절 - 7월 이후의 토양건조는 당도를 높이지만 산함량도 같이 높아지므로 8월 10일경까지는 어느 정도 토양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과실품질이 높아진다.

일소, 탄저병에 주의 - 8~9월에 일조량이 적고, 강우일수가 많은 경우, 9월 상순에 기온이 높고 강한 일사를 받으면 과실에 일소가 발생하고 탄저병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8월에 봉지씌우기 및 8월, 9월 상순에 탄산칼슘 등을 살포하여 일소병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하우스재배의 활용성 당도도 높고 산함량이 낮으나, 속껍질(양낭피) 두께가 두껍고 수량이 궁천조생보다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극조기 및 보조가온 하우스재배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고림조생(高林早生)

1. 육성경위

1975년 일본 시즈오까현(靜岡縣)의 감귤원에서 1972년에 심은 흥진조생 2,300주 가운데 1주가 착색이 빠른 것을 발견하여 검토를 실시한 결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1984년 등록된 품종이다.

2. 주요특성

수세 및 수량성 초기 자람세는 흥진조생과 비슷하게 양호하지만, 꽃이 잘피고 해거리가 적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세가 약해지지만, 수세는 극조생온주밀감 중에서 수세가 강한 품종에 속한다. 초기 결실전에 발육이 왕성한 봄순 등에는 가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잎은 흥진조생에 비해 약간 크나 잎모양은 보통온주밀감과 비슷하다. 개화기는 흥진조생에 비해 2일 빠르고 결실성이 양호한 편이다.